1月5日
1952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東京都千代田区神田猿楽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編輯兼發行人 吳允合

基督申報
The Christian Press

聖句
그런고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자에게는 결코 범죄함이 없나니。
(로마 팔장 일절)
박 명준 목사

社說

새해를 당해서 크게 바라는것

오날우리민족이 당면한역경의 비절참절한정도는 역사에서도 그유례를 찾을수없는것이라고 자라가 다말하고있다。 이상하고도야릇한 운명에놓인 반도산천은 적과우군의손이 교대하여 가면서 어느한곳이라도 써울면 이있는데라면 모조리 재와몬지로 화하게되었다。 물적또 문화시설의 파괴와손실에 대하여는 그게산조차 어려울정도로 막대한것이다。 그러고 여게따르는 인적가치의 손실은 어떠한표준을가지고 헤아릴수없을만큼 비참한것이다。

이러한비운의해를보내고 희망과광명을 약속하여야할 새해를 맞게되는이때 우리들의심경은 과연어떠한가? 광명을바라보고 또희망을붓잡었는가? 우리민족 대다수사람의 심리상태는 과연 어떠한것이라고 관단할것인가? 지금우리겨레가 겪고있는 붇정세에대하여 또는 과거六개月동안이나 질질끄어오는 휴전회담에대하여 우리는과연 어느정도의기대를 가자는가? 또어느모험에의하여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이것이우리에게 어느정도의만족을 줄수있는것이라고 보는가? 생각컨대 우리가운데 많은사람은게속해서 암흑에서 헤매이고 절망에서 신음하고 또그무엇에나 기대를가지는것같지않다 우리가당면한일은 사실 우리의 일이면서도 우리일같지도 않고 또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면서도 우리의힘만으로는 해결이 지여질것으로 보여지지도 안는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건설해야할 대상은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금전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암영을던저주는것이 있는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그성원상호간에 믿고 의지하고 협조하는정신이 쇠퇴한다면 그것은 위기를 알리는 경종이 아닐수없다。

이러한환경과 기압속에 싸여있는우리들은 때로는 절망의부르짖음을 발하며 「될대로 되여라」하고 그거꺼 버수가없다」하고 그거야말로 한인간으로서 또 한국민으로서의 의무와감정으로부터 절망의미래를위하여 아조 「해방」되여버리는 현상이있지나안는가한다。 이러한현상이 가저오는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과연 무시무시한 사회적죄악으로 나타나고야마는것이다。 이죄악상의 한가지죽정은 모든사람이 물질과금전에대하여 보다더 애착심을가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六·二五이래 우리가 위험을피해서 생명만을건저도、 고마울것이라는심경으로 애지중지하든 집 살림 의복과재물을 먼꿀같이 버리지않을수없든때를 잠간동안이라도 끝천다고하여서 양의협정이생겨서 가혹한전쟁이 지금우리겨레가 겪고있는 붇정세에대하여 또는 과거六개月동안이나 질질끄어오는 휴전회담에대하여 우리는과연 어느정도의기대를 가자는가? 또어느모험에의하여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암영을던저주는것이 있는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건설해야할 대상은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금전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이러한환경과 기압속에 싸여있는우리들은 때로는 절망의부르짖음을 발하며 「될대로 되여라」하고 그거꺼 버수가없다」하고 그거야말로 한인간으로서 또 한국민으로서의 의무와감정으로부터 절망의미래를위하여 아조 「해방」되여버리는 현상이있지나안는가한다。 이러한현상이 가저오는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과연 무시무시한 사회적죄악으로 나타나고야마는것이다。 이죄악상의 한가지죽정은 모든사람이 물질과금전에대하여 보다더 애착심을가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六·二五이래 우리가 위험을피해서 생명만을건저도、 고마울것이라는심경으로 애지중지하든 집 살림 의복과재물을 먼꿀같이 버리지않을수없든때를 잠간동안이라도 끝천다고하여서 양의협정이생겨서 가혹한전쟁이 지금우리겨레가 겪고있는 붇정세에대하여 또는 과거六개月동안이나 질질끄어오는 휴전회담에대하여 우리는과연 어느정도의기대를 가자는가? 또어느모험에의하여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암영을던저주는것이 있는듯하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건설해야할 대상은 우리의군사의힘으로 금전의힘으로 기술의힘으로 혹은 조직의힘으로는 도저히 손도대여볼수없이 크고도비할수없는것으로 생각되기때문이다。 그우에 이러한환경과 기압속에 싸여있는우리들은 때로는 절망의부르짖음을 발하며 「될대로 되여라」하고 그거꺼 버수가없다」하고 그거야말로 한인간으로서 또 한국민으로서의 의무와감정으로부터 절망의미래를위하여 아조 「해방」되여버리는 현상이있지나안는가한다。 이러한현상이 가저오는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과연 무시무시한 사회적죄악으로 나타나고야마는것이다。 이죄악상의 한가지죽정은 모든사람이 물질과금전에대하여 보다더 애착심을가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六·二五이래 우리가 위험을피해서 생명만을건저도、 고마울것이라는심경으로 애지중지하든 집 살림 의복과재물을 먼꿀같이 버리지않을수없든때를 잠간동안이라도 끝천다고하여서 양의협정이생겨서 가혹한전쟁이 지금우리겨레가 겪고있는 붇정세에대하여 또는 과거六개月동안이나 질질끄어오는 휴전회담에대하여 우리는과연 어느정도의기대를 가자는가? 또어느모험에의하여 우리의군사

殉教精神에 躍起하자

勉靑에 同志的結合提案

北韓勉靑에서 메시세지

三八이북에 정든 고향을뒤로 소위 월남한 북한 청년들중에 가장 활발하활동을 하는 청년젊은이들이 있다. 이우리들, 소위 북한 기독청년 면려회라고 한다. 그들은 철저한 반공선언을 하는동시에 멸공전선에서 싸우고있는 국련군과 국군의문을 비롯하여 상이군 병원과 피난민 수용소에 위문대를 파송하여 격려하는 한편 매주 일마다 부산 광복교회에서 월남신도 연합예배를 드리고있다

이용기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남녀 三인의 전도사를 세워 회원을 방문케하고 주일 예배에는 이동휘씨가 지도하는 총군성가대의 협찬을 받고 주일연합예배에 참석하는 四백여명 회원의 헌금은 개척전도와 구제사업과 천막전도에 기우리고 있는데 이비상한 활동을 지도하는 동회장 확은균 목사는, 재일본 한국기독 면려청년회장 김석진 장로에게 요지 다음과 같은 격려문을 보내여 왔다.

정의깊은 조국을 떠나 청산만리 해외에서 조국통일과, 진리옹호를 위하여 분투하는 신앙동지들에게 문안과 격려의 메세지를 드린다.

지금 조국은 전례없는 시련중에서 수많은 순교자와, 순국자들 내고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빨갱이들의 격멸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평화와 자유를위하여 끝까지 항쟁하려고한다 일본에 있는 동지들이여, 같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동지적 연락과 결합을 제안하는바이다. 동지 여러분 재일본 교포앞에 삼성과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축하를 드리고 궐기진군을바란다

월남한 북한 면려청년회 간부일동

基督者의 實踐團體結成

資本主義社會革新運動

기독교라면 자본주의 산하에 잠자는 단체인듯이 보는사회에 새로운 움즈김이 또하나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라인홀드 니버씨와 쪼 베네트 교수등 진보적 기독자 二백여명이 『기독자의 실천』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조직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개혁을 목적하며 기독자들을 계몽하려는 것인데 공산주의에 협조하려는 자들과도 반대하는 단체로 불원에, 성명도 발표 하리라는바 뒤꼴코 있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新聞便紙傳道

일본 NCC에서 발표 한바에 의하면 금년부터 일반신문광고란을 이용하여 구도자를 모집하고 편지로 지도하는 한편, 때를 따라 방문 하리라한다.

聖書註譯出版

美國大學者들

최근 미국 만하럴스 머디슨 아베뉴 장노교회의 쪼지 버트린 박사를 위시한 四六명의 대학자들이 성서주석의 획기적인 사업을 십년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바 미국에서 그첫권이 드디어 지난 주일에 출판, 되었다 한다 이에 출판 해설은 다음과 같다

버트린박사의 전반적인 편집 지휘하에서 된 이 새로운 성서 주석은 성경 연구의 획기적 사업이다 버트린과 그의 동료자들은 이일을 위하여 이미 칠년은 소비했으며 전十二권이될 최종권을 앞으로 六년내로는 준비되지 못할것이다 이사업을 완성시키자면 신교 二六교파의 四六명의 학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할것이며 소요되는 부수는 수만이 이상이 될것이며 비용은 백만불 이상이 될것이다 각 페이지는 옆으로삼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단에는 평향하는 성경본문 종류의 역본이 제십칠세기 임스왕의 헙정역과 개역성서가 실려 있다 이 본문 아래에는 주석의 부분이있다 버틀린 박사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성경의 한줄을 읽고 그 뜻하는바를 피상적으로 받어드리는 독자는 오늘 날의천체의 진리에 대한 경이학보 키자면 신교 二六교파의 四六명의 학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할것이며 소요되는 부수는 수만이 이상이 될것이며 비용은 백만불 이상이 될것이다 각 페이지는 옆으로삼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단에는 평향하는 성경본문 종류의 역본이 제십칠세기 임스왕의 헙정역과 개역성서가 실려 있다 이 본문 아래에는 주석의 부분이있다 버틀린 박사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성경의 한줄을 읽고 그 뜻하는바를 피상적으로 받어드리는 독자는 오늘 날의천체의 진리에 대한 경이학보

이러나는 同志들

野聲 도發行

전주(全州)에 저온이지식인들의 평신도 전도동지회가 탄성하였다. 이는 일찍부터 벽촌개척전도에 노력 하여오던 이 중신한 서울대학교수 장하구, 한국 신학대학교수 한철하 절온 전도인 안병부 동지들인데 그들은 조국재건의 날을 바라며 자기들의 사명을 민족복음화 사업에 발견하고 준비하여 오던바 초토화한 현실에서 이러나야 할것을 느껴 복음전도사를 조직하고 동인잡지 야성『野声』제一호를 내었는데 일쯔기 우리교계서 볼수없던 진실성 있는 잡지로 기대되는바 큰것이 있다. 한국교계가 교권자들의 지도권 장악 싸홈에서 버서나지 못하는때 이같은 지식인들의 평신도 운동은 새로운바가 있다.

五十년전만 해도 이와같은 주석은 소위 고등비판에 크게 치중했다

즉 제십구세기에는 사본의시대계산이라든지 또는 저자와 진의를결정하려는 노력하에서 본문 또는 문장의 스타일을 비교하는일에 몰두하였다 성서비판가들은오늘날 그들의 제십구세기의선행자들의업적에 크게 감사하고있다 그러나 유니온신학교의사무엘레트인교수는 다음과 같이말한다

오늘날 성경비판자들은제십세기초기에 광범하게 지적, 받은 교등비판의 많은 극단적인 임장이 전적으로거부를당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건전한 보수주의의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것을 시인하게되었다 모세가현존한 형식으로 모세오경을썼느냐 아니썼느냐 또는 예루살렘의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전장을 기록했느냐 안했느냐 또는마태복음의 저자이냐아니냐하는것을 아는일이 이미 결정적인 중대한 문제가 될 수없다 다음과 같이말한다

학자들은 성서에관한 정신이 동시대의 기독교학의 증언에서 분리될수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실로 그들은 성서종교의진수에 침투하자면 그들이 순수한 과학자 객관성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겸손과헌신으로 구원함을 받은자의사괴임에 연합하지않으면 아니되며 또한 그사괴임을 내부에서 동찰하여야한다 이와같이 새롭고 또 위락된 학적정신에서 그해석자의정서를저술하게 된것이다 박트리박사는 요약하였다

오직 한권의 책이 있을뿐이다 그 책의 명사이며 다른책들은 빈약한 형용사에불과하다 우리의 시대가 자조의파멸적 교회에서 하나님의뜻과 힘에대한 새로운순종으로 인간의폭발적 기술에서 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 하나님의 온혜에대한 신뢰로 전환하고 있는 몇가지의 증조가 보인다 우리들은 이 해석자들의성서가 이전환을 촉진시키며 왕의왕 주의주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안에서 다스리시려고 오실 그길을예비하도록 기도드리는바이다 하였다

基督敎入門

상을 사랑하셨다 이세상에 일년전부터 예비하사 그것을 다 본자인 더러운 죄인 나를 사우리에게 마끼셨고 산간의 짐 랑하셨다 또 너를 사랑하셨다 승과 공중에서 노래하는 새들 육비라고 도로받는이가있는가? 하물며 우리의 아바지 하나님 이시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

殉教史話

사랑의原子彈 (9)

기한에고통하는전제민

동족에로구호하자

작년 十一月말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피난민과 이제민의 총수는 六백七十四万三千九백여명인데 그중중요한 구호대상자인데 아직 구호를 받지못하게되는 피난민의수는 실로 二백万명에 달하고있으나 금후 그들에게 대한 정부의 적절한 구호대책이 속히 요망되고있다 그러나 유한한 예산물과 구호대책에서는 二백万의 구호하고있는 당국자로서 구호대상자에서는 二백万의 구호대책에 동족애의 구호를 협력하도록 바라고 있다고한다.

제를 토론할 시간이 있는것을 알고 학생들은 마음놓고 예배에 전심하게 되었다.

공부시간이 시작되자 Y선생은 「여러분은 자기도 어제 야구시합에서 들은 사건을 누구에게서 들었는데 하고 두서너 학생에게 실상을 설명시켰다. 그들의 말의사와 같은 것이다. 이 의사는 시험위에다가 줄을 처서 온 운동하는 데 규칙이 필요 이 약병을 얹어 놓았는데 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세상에 줄에는 같은따위의 약을 세워서 명예와 정의를 돌아보지않 놓았다. 두통환자가 찾어 왔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수있는 두가지 약병을 준비하여 놓은 것이다. 이 의사는 그의 병이 무 때가 있을까요?」하고 물었다 엇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생각 이 문제를 토론하기에 얼마간 지않고 그 환자가 그날에 왔 의 시간을 썼다. 우리는 반드다는 연고로 첫줄에 있던 약 시 규칙이 있어야 하며 움고병을 준다. 그다음에는 손이 그른것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부은 환자가 온다. 의사는 그 한다는 결론이 나온즉 선생은도 같은날에 온것이기 때문에 일부분만을 쓰던지 혹은 경우 생활에 필요한 법을 한 두통환자에게 준 약을 준다. 에 따라서는 모두 집어치워도 갖춤씩 써보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하야 그날 찾어온 환자 좋다는 견해를 가졌든것이다. 시켰다. 쓰기를 착수하기전에, 는 전부 똑같은 약병을 받어 무엇보다 학생이야 말로 중 약간한 토론이 또 있었다. 가지고 간다. 그다음날에 오는 요한것이지 교안은 이학생의 다 하고나니 남은 시간은 환자는 그 병이야 어떻던 그 요구를 채우는것이 아니면 안 조곰 밖에 없었다. 선생은「오 다음줄에 있는 약을 밤에된다 됩시다」하였다. 학생들은 이평 늘공부는 사울왕에게 대한 이사흘날에 오는 병자는 세째 게하야 모두들 공부에 주력하 야기인데 이제 사울왕이 여러 줄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도대 였든것이다. 분이 쓴 법대로 살았다. 알아 체 무슨 의사란 말인가? 교 Y선생은 학생중심적 교사다 요구를 채우는것이 아니면 안 안중심적 교사야 말로 이런노 준비한 교재가 아이들의 요구고 다만 책에 적힌 교재를 력을 주일마다 하고 있는것이 에 적응한것이 아님때는 그 가르치는 것만을 목적 삼는것 다. 이런교사는 자기의 학생의 어쩌 그 요구를 알것이며 요 이다. 교사책은 교회학교 교사 요구를 알지 못하면 요구를 알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한 지침(指針)을 보 모르고 어쩌 이에 적응 여주는 것이니 여러분은 이런 교사책에는 五十二파의 주파 책의 종(奴隸)이 될 것이 아니당 그날에 쓰게 된 교재가 학생들의 그때의 요구에 적응한 것이거든 그대로 쓰랑. 그러나 만일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안는 것이거든 교사가 몸소 교안을 만들어 준비하라. 원하건대 여러분은 「교제중심적교사」가 되지말고 「학생중심적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教會學校講座

教案中心的教師와 學生中心的教師

노안리

(일러두기) 종래 주일학교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교회학교』라고, 하는 편이 이 교육의 성격과 또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잘 나타 내는 것이며 『주일학교』라는 말이 자찌하면 글자 그대로 주일 하루에만 한정된 단편적인 교육이 되기 쉬었든 사실을 표명하는 듯 보이는데 비하야 『교회학교』편이 교회의 교육의 본질과 이상을 표명하는 이름다운 것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니 우리는 망서리지 않고 이것을 써야 할것이다.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두가지 본이 있는데 하나는 교안중심적 교사요 또 하나는 학생중심적 교사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겠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두학교가 운동장에서 야구시합을 하였다. 심판관이 공명정대하게 책임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만 불공평한 심판을 하여 말성을 이르켰든 것이다.

그 이튿날 주일에 십대(十台) 소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들의 화제가 무엇이었음은 말할필요도 없었다 이학교에는 십대 아이들의, 학급이 두개가 있어서 각학기 X선생과 Y선생이 그 책임을 맡고 있었다.

X선생은 상학시간도 되었을 때 등교하였다 거의다 학생들은 무엇을 의 논하며 지저귀느라고 법석거리고 있었다. 그 학생들을 잠잠케 할려고 애를 써쓰다 교장이 예배를 시작 하였는데도 학생들은 여전히 떠들었다. X선생은 말을 그만 두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그리하였드니 학생들은, 소리를 낮추워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리다가 공부시간이 되었다. 선생은 아이들에게 『야구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 두었으면 좋겠읍니다 오늘은 주일날 이니까 공부에 주의하여야 하겠읍니다. 오늘은 사울왕에게 대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사울왕 이야기를 들을 차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문제가 아리스아리스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X선생은 교안중심적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책에 이날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여있다고 하야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래서 이선생은 정한시간동안 사울왕 이야기를 하여주고 말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어제 야구시합에서 생긴일에 대하야만 수군거리기도 하고 혼자,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공부는 끝났다 사울왕 이야기를 해주었것만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을 정말로 들었을지 의문이다. X선생은 그날의 교안대로 가르쳐쓰니까 그 의 Y 한줄로만 알고있었다 한다는 그런데 다른학급에서는 Y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보게해주십시오. 공부시간이 되면 어제 여러분이 말하던 문제를 계속하야 토론하겠습니다.」하였다. 자기들의 운어와 보았다. 본즉 이날은 학생들이 선생보다 먼저와서 대실한 문제는 실로 그들에게 절 것이었다. 이것 저것 질 해보느라니까 예배시간이 되었다.

Y선생은 「자 여러분 이제 학생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을 알지 못하면 그 요구를 알것이며 요 모르고 어쩌 이에 적응 한 공부준비를 할수있을까? 주파

基督教入門

사랑은 무엇인가

李 明 植

모든 사람들은 참된사랑이 없어 울고있다. 보라! 일찍서산하야 황혼이되매 오작도 기스로 도라가고 들짐승도 제 곳으로 도라가는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도라갈곳도 없어 외로히 서서 우는아이가남누한 의복을 입었으니 붉은살은 이구멍 저구멍 에서 내여 빛최인다 그 아해는 왜 우는가 하면 물론 춥고 배가 곯어서 운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이 없어서 우는것이다 그아해라도 만약 사랑하는이가 있어서 위로 하는이가 있었다면 우지 아니하였으리라

또어찌하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만경창파에도 던져버리고 시퍼런 칼날로 잘르고 노끈 한파람 으로도, 곤히 버리고 먹지 못할 독약을 마시고 고민하다가 원한을 기리품고 도라오지 못하는 객이 되는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하다 과연이세상에는 사랑이 없다. 육정에 붙은사랑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사랑이다 내가 실패하는 때에 내게 사랑을 줄사람이 없다. 내가 죄를 범하거나 내가 병들때나 사랑하여 주는 사람이 없다 아! 이세상은 쓸쓸하다 그러나『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의 사랑은 크시고 원만하시고 영원하시다 귀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천한사람도 사랑하시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잘난사람 못난사람 불구자도 사랑하신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낙심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죄악으로 관영한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세상에 일년전부터 예비하사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마끼셨고 산간의 짐승과 공중에서 노래하는 새들이시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풍성함으로 사람이 깨닫어서 주실뿐이오 값으로 받으신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아버지가, 아달을 양육하고 그후에 그냥 육비라고 도로받는이가있는가? 하물며 우리의 아바지 하나님 이나 우리는 망서리지 않고 이것을 써야 할것이다.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두가지 본이 있는데 교안중심적 교사요 또 하나는 학생중심적 교사다 처음 교안중심적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책에 이달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여있다고 하야 그대로 하는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치고 있었는데 그는 상학전에 좀 마리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화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리다가 공부공평한 심판을 하여 말성을 이르켰든 것이다.

그 이튿날 주일에 심대(十台) 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였드니 학생들은, 낯추워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리다가 공부를 다 한줄로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다른학급에서는 X선생이 역시 심대 소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는 상학전에 던 문제를 계속하야 또론하겠다고 하였다. 자기들의 문제

韓國 青年運動의展望

大韓基青連合幹事 이 환신

우에 말한바와같이 이러한시대에 이러한 청년이라고 하면 그들 그룹을 도움는 이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성의 인정하고 존경 하자 남에게 천대만 받아온 사람은 역시 남을 존경할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 못한 사람은 역시 남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 자신을 존경할줄 모르는 사람만이 소극적으로는 타락생활을 하게되고 적극적으로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것이다 미국의 독립운동은 어떤 두청년이 아른 풍뎀불아래 앉어서 자기들은 정점 영국통치자의 노예로 화하고있는것을 느끼노라는 데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한두사람의 값 있는 생각이 얼마나 힘있는것임을 가히 알수있다 앞으로「우리청년운동」이 하지않어서는 아니될 일은 개성의 가치를 존중할줄 알도록 개인과 사회에 솔선실행할것이다

둘째는 개성은 「확장운동」이다 이것은 대자아의 운동이오 자아 사회운동이다 맞치, 개골에 흐르는 맑은 시내물처럼 시원스럽게 실패할 수 있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있게 나아가는 것이 청년운동의 결코 선전기구나, 정당의 도구를 목표한 운동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의 청년운동은 청년들로 하여금 개인으로 국민으로 세계시민으로 성공하도록 청년을 도움는 운동을, 말하고 싶다 개인으로 실패할 지라도 국민으로 성공 하여야 세계시민으로 실패할지 언정 시비시비 하지 않고 구하여 있다는 유쾌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근년 어떤나라에 있어서는 협동상점(協同商店)이라는것이 있읍니다 존재가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고객자신들이 이상점의 소유자가 되여 그 사업의 이익은 고객들에게 도라가는것입니다 이것은 주 어떤수에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러가지고 자기네들의 요구를 공급하기위하여 상점을 경영하는것입니다 매연도말(每年度末)에가서 상점운영비(商店運營費)를 제하고 남는 그순이익을 그조합원들이 분배하되 각사람의매상(賣上)에 의지해서 이러한상인은 모든 고객(顧客)으로서 상점에 자기욕망을 채우려고만 하고 그고객들도 각각 요구하는것이 있다는사실을 생각지 안는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적 상점에서는 어떤상품의 매매를, 성립함으로서고 이러한 것이 너희들 택한 너희들 이는 너희로 맺게하고 또 가 들 있게하 백이름으로 아 을 구하든지 하려 함이니라 十五절 十六절 회 조기선목사

민주々의 講座 (11)

피시어 박사

고객과 상인이 피차에 이익을 보는것입니다 즉 상인은 그가 얻어야할 정당한이익을 얻고 또고객은 그필요품을 구하되 부당하게 높은값을 주지않고 구하였다는 유쾌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것입니다 근년 어떤나라에 있어서는 협동상점(協同商店)이라는것이 있어서 그 사업의 이익은 고객들에게 도라가는것입니다 이것은 주 어떤수에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러가지고 자기네들의 요구를 공급하기위하여 상점을 경영하는것입니다 매연도말(每年度末)에가서 상점운영비(商店運營費)를 제하고 남는 그순이익을 그조합원들이 분배하되 각사람의매상(賣上)에 의지해서 이러한상인은 모든 고객들에게 할것이오 그 이익을 구하든지 하려 함이니라